

<서식6>

정책연구 평가 결과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

정책연구과제명	치과의사 전문과목 신설 등 전문의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	연구기관/책임연구원	한국보건사회연구원/이상영								
부서/과제담당관	구강생활건강과/박상현	담당공무원	유정현								
연구방식	1. [√] 위탁형 용역 2. [] 공동연구형 용역 3. [] 자문형 용역										
연구자 선정방법	1. [] 일반경쟁계약 2. [√] 수의계약										
연구기간	2016.5.20 ~ 2016.12.15 (약 7개월)										
연구결과	○ 전문과목 신설 편익/비용 분석										
	<그림> 과목신설에 따른 편익/비용 분석틀										
	<table><tr><th>구분</th><th colspan="2">분석 내용</th></tr><tr><td rowspan="3">1. 사회 전체(국가) 2. 공급자 3. 소비자</td><td>편익</td><td>- 치과의료서비스 공급의 효율성(전달) - 치과의료서비스의 질 - 치과의료서비스의 형평성 - 소비자 편의성(선택권)</td></tr><tr><td>비용</td><td>- 신설에 따른 직·간접 비용 - 신설에 따른 부작용 및 문제점</td></tr></table>			구분	분석 내용		1. 사회 전체(국가) 2. 공급자 3. 소비자	편익	- 치과의료서비스 공급의 효율성(전달) - 치과의료서비스의 질 - 치과의료서비스의 형평성 - 소비자 편의성(선택권)	비용	- 신설에 따른 직·간접 비용 - 신설에 따른 부작용 및 문제점
	구분	분석 내용									
	1. 사회 전체(국가) 2. 공급자 3. 소비자	편익	- 치과의료서비스 공급의 효율성(전달) - 치과의료서비스의 질 - 치과의료서비스의 형평성 - 소비자 편의성(선택권)								
		비용	- 신설에 따른 직·간접 비용 - 신설에 따른 부작용 및 문제점								
		▶ 사회 전체(국가) 측면에서의 편익									
	- (치과의료서비스 공급의 효율성) 치과의료서비스 분야 전달체계의 작동 정도와 소비자들의 이용 행태(1차, 2차 구분 없이 서비스 이용)를 고려할 때, 전문과목 신설이 전달체계 측면에서 제공할 수 있는 편익은 크지 않음										
	- (치과의료서비스의 질) 전문과목 신설이 이론적으로 치과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에 이어질 개연성이 존재하지만, 현실에서 신설 전문과목이 특화된 진료영역을 발굴하여 수련과정 및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의미 있는 질 향상을 가져올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음										
	- (치과의료서비스의 형평성) 일부 신설과목에 한해 사각지대 해소 등 소비자의 치과의료서비스 이용 측면에서 형평성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으나, 치과 전문과목간 공동 발전이라는 형평성 측면에서는 부정적 요인이 많음										

- **(치과의료서비스의 소비자 편의성)** 소비자의 다양한 선택의 폭 확대와 선택상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으나, 진료과목의 명칭과 대상, 영역, 기능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

▶ **사회 전체(국가) 측면에서의 비용**

- 사회 전체로 보았을 때 비용의 절감 효과는 불명확한 반면, 직·간접 비용의 증가는 비교적 명확하게 예상됨

▶ **공급자 측면에서의 편익**

- 위험 소지를 가지고 있던 법·제도 개선을 통해 치과전문의 제도 운영의 타당성 제고와 문호 확대라는 편익을 기대할 수 있음
- 그러나 그 이외의 편익들은 신설되는 일부 전문과목에 한하여 매우 제한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, 이들에게 발생하는 편익은 기존 전문과목의 편익 감소 및 국민들의 비용 증가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함

▶ **공급자 측면에서의 비용**

- 전문과목 신설은 기존 치과의료계의 인력자원 분포를 크게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되며, 이 과정에서 신설과목 및 기존과목 간의 갈등과 그에 따른 간접비용이 클 것으로 예상됨


▶ **소비자 측면에서의 편익**

- 각각의 세부 전문과목에 따라 소비자의 치과의료이용 경로, 서비스의 질, 형평성, 선택권 측면에서 편익 증대가 예상됨
- 그러나 반대로 소비자 부담을 야기할 수 있는 요인 역시 포함되어 있으므로 (유인수요, 불분명한 명칭 등),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제가 마련되어야 함

▶ **소비자 측면에서의 비용**

- 치과의료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소비자의 비용 상승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, 그 상승폭은 크지 않을 것이며, 정보제공 기제가 마련될 경우 적정 진료의 선택을 지원하여 비용 절감을 가져올 여지도 있음

	<p>○ 전문과목 신설에 대한 종합적 판단</p> <p>▶ (임플란트과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신설에 따른 편익 증대분이 비용보다 크다고 할 수 없으며, 학문발전을 위한 새로운 영역 창출이라는 측면에서도 근거가 부족하여 현시점에서의 임플란트과의 전문과목 신설은 바람직하지 않음 <p>▶ (심미치과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존 전문과목들과의 차별화된 영역 특화, 종합적·통합적인 시각의 근거 부족 - 신설에 따른 편익 증대분이 비용보다 크다고 할 수 없으며, 학문발전을 위한 새로운 영역 창출이라는 측면에서도 근거가 부족하여 현시점에서의 심미치과로의 전문과목 신설을 바람직하지 않음 <p>▶ (노년치과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존 전문과목들의 사각지대에 위치한 대상자 특징이 비교적 명확하고 치과의료서비스의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전문과목 신설에 따른 편익이 있다고 판단됨 - ‘노년치과’ 명칭은 치과의료계 및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하기 쉽기 때문에 중증환자, 중증장애노인 등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할 수 있는 명칭 설정이 필요함 <p>▶ (치과마취과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존 전문과목이 포함하지 못하는 술기의 특징이 명확하고 필수서비스인 마취서비스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‘未신설에 따르는 문제점 발생’ 측면에서도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됨
<p>평 가 결 과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정책연구 목적과의 부합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치과계의 치과의사 전문과목 신설 요청에 따라 과목신설에 따른 편익과 비용을 분석하여 사회전체와 공급자, 소비자 측면에서의 영향을 분석하여 국가 치과의료 수요에 부응하는 정책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로 연구목적과 부합함 • 추진방법의 적절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내 치과전문의제도 운영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, 주요 선진국의 사례 분석 및 치과전문의 제도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치과계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하는 등 추진방법이 적절함
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계약 내용의 충실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전 연구계획서대로 충실히 이행 •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 여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해당사항 없음 • 연구결과의 활용가능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치과 의사 전문과목 신설에 대한 비용/편익 분석을 제시하여 추후 정책마련 등에 활용기대 • 기타사항 		
평가자 확인	구 분	평가전문위원		과제담당관
	성 명	오 영 아 		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박상현
평 가 보고회	개최일자	2016.12.8.	장 소	보건복지부 회의실(315-2)
	참석자	이상영 책임연구원, 윤강재 연구원, 최지희 연구원, 차미란 연구원 구강생활건강과장, 구강생활건강과 박상현 사무관		